

01.16 月 _ 상속

추상화

특정 class 가 있으면 그 class의 대표할 만한 속성들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이용해 설명하는 것

왜 추상화 작업을 해야 하나 ?



→ 상속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하나의 System이 있다. 그리고 그 System을 구성하는 객체들이 있다. 그 객체들을 쭉 펼쳐 보니 뭔가 **공통적인 특성**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공통적인 특성들을 보기 위해서 각 class 마다 추상화 작업을 해야한다.

왜 상속을 하나 ?



1. 모든 객체들마다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는 놈들을 전부 부모 객체로 올려서 안에 **속성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2. 부모의 형으로 다형성을 이용해서 자식들의 객체를 부모의 형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

상속을 하려면 **공통적인 속성**들을 일단 뽑아 내야 한다 🙌 이 작업이 결국 **추상화** 작업이다.

class의 이름을 만드는 것 역시 **추상화** 작업이다 . ex) 농구 게임 (인간 , 선수....)

추상화 작업을 끝내 놓으면 각 class 마다 대표하는 속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를 가지고 상속 관계를 이끌어 내야 한다.

class를 대표할만한 속성 자체를 뽑아내는 것이 추상화
→ 그 속성들을 위쪽의 부모로 올려 만들어내는 것 또한 추상화에 들어간다



추상 Method , 추상 class 없어도 프로그램은 돌아가지만
강제성 (強制性) 을 적용 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추상 Method , 추상 class 라는 것을 프로그래머에게 알려주기 위해
abstract 붙인다



⇒ 다형성과 추상화에는 반드시 상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1. 상속
2. 다형성 (가시성, 동적 바인딩) - 부모의 형으로 자식의 객체를 가르키는 것
3. 추상 (추상 클래스 , 추상 메서드) - 전체 class에서 각 class를 대표하는 공통 속성을 뽑음

타입 저글링을 사용하면 다형성 , overloading 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이썬의 OOP 를 자바OOP 와 비교해 가면서 공부해 본다

상속 (Inheritance)



class 초기화 블록은 class가 **사용될 때** 딱 1번만 호출된다. (상속 관계가 다 적용 된다)

따라 올라가면서 부모의 class 속성을 다 가지고 올라온다



자식만 만들어 지는 경우는 없다 !

부모부터 다 완성되고 나서 자식이 만들어 진다 !

```
package Test;

// 상속

class A {
    static { System.out.println("S Initialization of A");} // class 초기화 블록
    { System.out.println("Initialization of A");}          // 인스턴스 초기화 블록
    A() {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A"); }        // 생성자
}

class B extends A {
    static int x = 3;
    static { System.out.println("S Initialization of B");}
    { System.out.println("Initialization of B");}
    B() {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B"); }
}

class C extends B {
    static int y = 3;

    static { System.out.println("S Initialization of C");}
    { System.out.println("Initialization of C");}
    C() {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C"); }
}

public class MyFo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ystem.out.println(C.y);
        System.out.println("=====");

        //1. A 의 인스턴스 초기화 블록 , 생성자 호출
        //2. B 의 인스턴스 초기화 블록 , 생성자 호출
        //3. C 의 인스턴스 초기화 블록 , 생성자 호출

        new C();
        //new C();
    }
}
```

```

    }
}

# - *출력 내용 -*

S Initialization of A
S Initialization of B
S Initialization of C
3

Initialization of A
Constructor of A
Initialization of B
Constructor of B
Initialization of C
Constructor of C

```

```

package Test;

// 상속
//

class A {
    static { System.out.println("S Initialization of A");}
    { System.out.println("Initialization of A");}
    A() {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A"); }
}

class B extends A {
    static int x = 3;
    static { System.out.println("S Initialization of B");}
    { System.out.println("Initialization of B");}
    B() {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B"); }
}

class C extends B {
    static int y = 3;

    static { System.out.println("S Initialization of C");}
    { System.out.println("Initialization of C");}
    C() {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C"); }
}

public class MyFo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ystem.out.println(C.y);
        //System.out.println("=====");

        new C();
        new C();

    }
}

```

```
}
```

생성자

```
package test;

// 상속
class A {
    A() {          // A의 부모는 Object
        //super( ) ; 생략 되어 있다      super( ) = 참조변수(부모 객체의 주소 값)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A");
    }
}

class B extends A {
    B() {
        //super( ) ; 생략 되어 있다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B");
    }
}

class C extends B {
    C() {
        //super( ) ; 생략 되어 있다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C");
    }
}

public class TEST7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new C();    // ( ) <- 이게 생성자를 호출 하는 것
                   // 이것은 사용자가 선택해 호출 하는 것

        //
    }
}

*출력 내용-*

Constructor of A
Constructor of B
Constructor of C
```

- 전처리(기) 과정에서 생성자에 `super() ;` 를 다 자동으로 붙인다
- 메모리 상에는 A B C 가 만들어지고 **생성자**를 호출한다, 호출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자식의 실제 찍고자하는 class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자식이 존재하려면 부모가 존재해야 한다. → 초기화 작업도 부모부터 일어난다.
메소드는 실행이 다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한다.

호출은 자식에서 했지만 실행은 부모까지 갔다가 부모부터 다 실행이 되고 자식
순으로 실행이된다.

Java에서 생성된 모든 class의 최상위 부모는 Object !



Java에서는 모든 class를 Object로 관리한다.
Java에서 class를 만드는데 상속 관계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그 class는 자동으로 extends Object가 자동으로 붙는다 ! Object 위
에는 없다
⇒ Java에서 상속을 받지 않은 모든 class는 Object를 부모로 가진다.

Java에서는 모든 class를 하나로 관리하고 싶어한다. 그 class마다 각각 공통
적인 기능을 추상화 작업 시킨다. 그럼 Java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자료형으로
관리하고 싶다. 그래서 Object를 하나 만들고 추상화 해서 나오는 개념들을
Java의 객체라면 무조건 가져야 할 속성들을 Object에 집어넣는다 (그 중에
하나가 toString)

default constructor가 없는데 불러오니 에러가 뜬다!!

자바에서 생성자를 만드는데, class 내에 생성자가 하나도 없으면 default constructor를
자동으로 주입시킨다

생성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default constructor는 만들어 내지 않는다.

생성자는 Overloading이 가능하다

default constructor를 만들어 놓지 않고 나중에 default constructor를 호출하려 하면 에
러!

```

package test;

// 상속
class A {
    A() {
        super();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A");
    }
}

class B extends A {
    B(int a) {      // <- 기본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default 생성자를 자동으로 안 만든다!
        super();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B");
    }
}

class C extends B {
    C() {
        super();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C");
    }
}

public class TEST7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new C();
    }
}

```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super()**를 건드려 줘야 한다

```

package test;

// 상속
class A {
    A() {
        super();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A");
    }
}

class B extends A {
    B(int a) {
        super();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B");
    }
}

```

```

class C extends B {
    C() {
        super(2);    // <- 이렇게 B 생성자 맞는 값을 super에 넣어줘야 한다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C");
    }
}

public class TEST7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new C();
    }
}

```



부모 class도 생성자가 **overloading** 된다!

상속 받으면서 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 부모의 어떤 생성자를 호출하겠다 라고 **super()** 를 직접 건드려야 한다

생성자의 종류를 확인하고 맞춰서 불러와야 한다!!



상속을 받을 때 위의 class를 제대로 확인 (생성자) 하고 상속 받아야 한다!

```

package test;

// 상속
class A {
    A() {
        super();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A");
    }
}

class B extends A {
    B(int a) {
        super();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B");
    }
    B(int a , int b){}
}

class C extends B {
    C() {
        super(2); // 생성자의 종류를 확인하고 맞춰서 불러와야한다!!
        System.out.println("Constructor of C");
    }
}

```



```

    }
}

public class TEST7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 여기 2줄 주석 처리해서 실행결과 한번 보기
        // System.out.println(C.y);
        // System.out.println("=====");

        // new C();
        new C();
    }
}

```



객체가 다 만들어지고 초기화 작업이 일어난다.
⇒ 메모리에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초기화 작업!

Modifier

| class와 class의 구성 요소를 꾸며준다

1. Access Modifier (접근 제어자)
: 내부에서 접근하거나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제어할 수 있는 역할 (접근하는 정도를 지정해줄 수 있음)
2. 그 외 (다른 언어에 있는 것도 있고 , 없는 것도 있다)



Access Modifier (접근 제어자) 는 언제 사용되나?

1. 참조 변수 관점에서 사용된다 (외부 접근)
2. 상속 관계에서 사용된다

제어자가 필요하다!

```

package test;

// 상속
class Car {
    int velocity = 0;
    void IncAcel() {++velocity;}
    void DecAcel() {--velocity;}

    int getVelocity () {return velocity;}
}

public class TEST7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Car obj = new Car();
        obj.IncAcel();
        obj.IncAcel();
        System.out.println(obj.getVelocity());

        obj.DecAcel();
        System.out.println(obj.getVelocity());

        obj.velocity = 100;    // 갑자기 지멋대로 100을 치노? 접근 제어자 필요!!!
        System.out.println(obj.getVelocity());
    }
}

```

	친절 (다 됨)	←	←	엄격(다 안됨)
	public	protected	default	private
외부 참조	●	▲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 본인 class 안에서만
상속	●	▲ 다른 패키지에서 상속만 가능	▲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 본인 class 안에서만

상속을 하는데 , 자식에게 빛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어떤 멤버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을 때 접근 제어자를 사용한다!